

순천 재산권 침해 민원 줄었다

市,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건물 매수 활발…도시미관도 개선

순천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수 청구 즉시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하면서 재산권 침해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매수 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철거되는 등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도시계획 시설 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시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매수청구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2002년 매수 청구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55억9천300만원을 투입해 토지는 8천547㎡에 49건을 매입했으며, 건축물을 29동을 철거했다. 이는 시에 접수된 매수 청구에 대해 시가 모두 받아 들인 것이다.

시는 올해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매입한 건물 1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적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경우 시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을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균형생활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건축물 철거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매입 건축물 철거로 폐지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대상은 5천746필지로 매수 청구를 전액 받아들이려면 1천억원이 소요된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i@



한국 어린이자료실 차 마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여수시는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해 인재, 사랑채, 문간채, 마당을 갖춘 ‘한국 어린이자료실’을 마련했다.

보성녹차 국제유기인증 올해도 적합 판정

지난해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한 보성녹차가 올해에도 국제유기인증 정기 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국제유기인증 심사 기관인 ‘Control Union World Group’ 한국법인이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국제유기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성 관내 차밭 및 가공공장 등 22개 소 127.4ha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모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은 앞으로 국제인증 보유 보성녹차 생산자와 세계적인 식품 유통 및 차 관련 제품 생산 업체간 만남의 장을 확대해 보성녹차 해외 시장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사를 담당한 이광섭 검사원은 “모든 생산자가 유기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고 있다”며 “최신 가공시설과 위생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이 확립돼 있어 어려움 없이 국제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廢 광산 주변 광양·순천·보성 오염 심각

전국 110곳 토양·물 조사 95% 오염 기준치 초과

광양, 순천, 보성 등 전남지역 폐 금속광산 주변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8개소 등 전국 폐금속광산 110곳을 대상으로 주변의 토양과 물을 정밀조사한 결과 95%인 105곳이 오염 기준을 초과했다. 전남 조사대상지역은 광양, 순천, 보성, 영암, 함평, 강진 등 6개군 8개소이다.

또 폐금속광산 인근 하천과 주거지역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에서도 납, 카드뮴, 비소, 시안 등이 하천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지하수 관정 폐쇄와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오염이 확인된 광산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하고, 토양복원 등 조속한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침·듬·경락 수강생 모집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형/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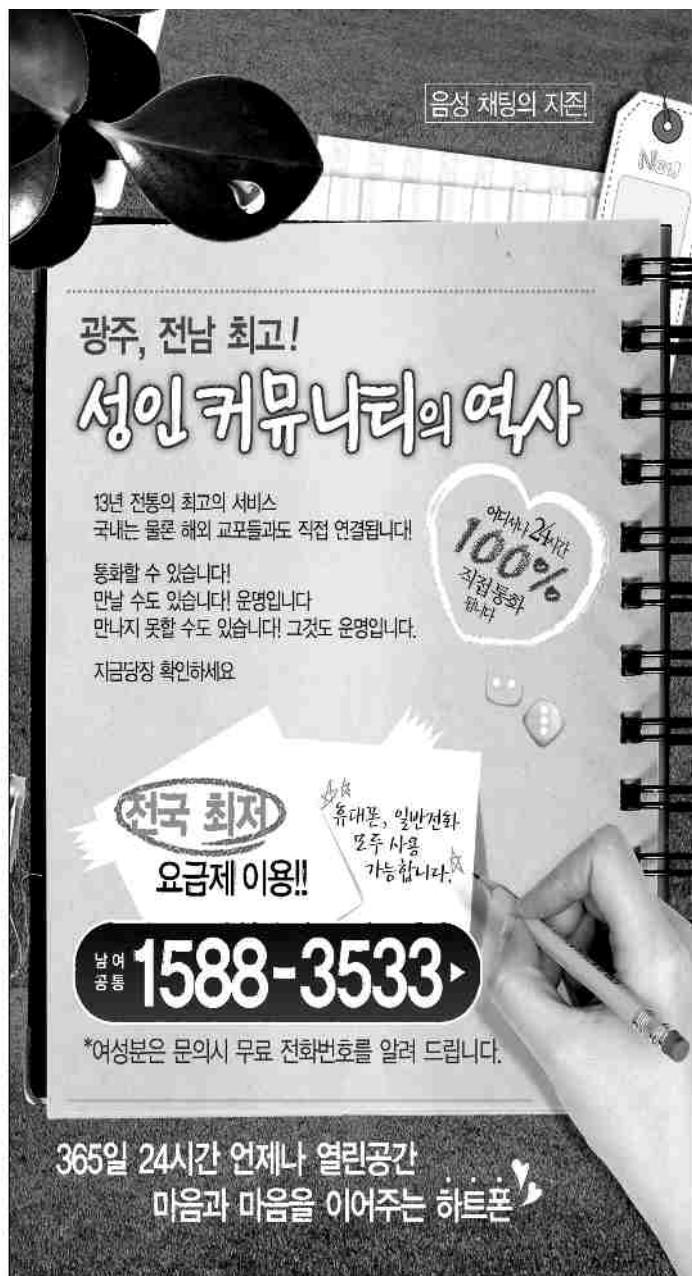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상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해외시용 가능)

요녕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 대졸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 3년
- 입학 :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 중의기초이론/침구추나학/중의골상학/중서의결합한의학/중약학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공장매매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 지
6,345㎡(1,920평)

■ 건 물
1,685㎡(510평)

■ 전 기
계약전력 200㎾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여수시 외국 관광객 입맛 잡는다

박람회 대비 中·日 요리사 초청 선호 음식 20개 개발 나서

여수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이들이 선호하는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개발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를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할 것으로 대비해 지역에서 나는 대표로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시식하게 한 후 중국과 일본 각각 10개씩 대표 메뉴를 선정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일본인들을 위해 오는 19일

한 메뉴를 10개씩 개발하면 이를 여수지역 음식점 관계자가 시식을 통해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음식문화를 접할 때 느끼는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요리사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며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기자 ykpark@

고흥청소년우주센터 개원준비단 출범

순천시-순천대총학

3개팀 14명으로 구성…센터 건립 가속도

청소년 우주체험시설인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이하 우주센터) 개원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주체험센터 운영위탁을 받은 한국청소년수련원(이사장 김두현)은 최근 우주활동팀·고객지원팀·사업 지원팀 등 3개팀 14명으로 ‘국립 고흥 청소년우주센터 개원준비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개원준비단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우주센터의 체험시설 및 장비를 안정적으로 인수하는 업무와 함께 청소년들이 ‘한국형 우주체험 테마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다.

‘한국형 우주체험 테마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우주탐험대를 구성, 우주기초과학 학습 및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고 가상의 우주에서 임무를 실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개원준비단은 천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원준비 및 현장시설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4월 말에 20여명 규모의 신규 인원을 총원할 예정이다.

이용구 개원준비단장은 “21세기 청소년의 폭넓은 성장을 위한 우주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고흥지역 우주과학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립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나로우주센터 인근 동일면 면허리 일대 27만1천여㎡에 건립중이며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

순천시와 순천대총학생회가 지역 발전에 공동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와 순천대총학생회는 10일 순천대에서 열린 제26대 순천대총학생회 출범식 행사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협약을 맺었다.

시와 순천대 총학생회는 대학발전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지역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순천 대총학생회가 지역최대 현안 사업인 정원박람회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며 먼저 협약을 제안해 의의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광양 매화문화축제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다방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정수기자